

# “경기도-퀸스랜드의 액션플랜” 체결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호주 피터비티 퀸스랜드주 수상



경기도와 호주 퀸스랜드주가 손을 잡고 우호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피터비티 호주 퀸스랜드주 수상과 '경기도-퀸스랜드 2007-2008 Action Plan'을 체결하고 우호협력을 다졌다.

이번 체결은 지난 97년 양 도주가 자매결연을 맺은 뒤 매 2년마다 체결하는 협력 실행계획을 약속하는 제 4차 체결식으로, 문화산업, 환경관리, 인프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대표단 파견, 정보·기술 교환을 협력사업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와 퀸스랜드주 양 지역간 우호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추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퀸스랜드주와 경기도는 지난 1997년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두터운 우정을 바탕으로 농업공동 과제 연구, 산림분야 연구 등 실질적 교류를 통해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켜왔다"며 "특히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4차 액션플랜은 구체적 협력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우호적인 가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퀸스랜드주와 경기도간의 제4차 액션플랜을 함으로 양 지역간 우호협력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추진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 간 우호관계에 있어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터비티 퀸스랜드 주수상은 "한국은 퀸스랜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한국은 무역 규모로는 2위고, 액수로 2005~2006년에 호주달러로 40억 달러를 능가했다"며 "퀸스랜드, 특히 주 정부에서는 경기도와 무역관계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첨단 산업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와의 우호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터비티 주수상은 "경기도의 글로벌 인스프레이션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희 퀸스랜드의 스마트 스테이트와 같이 상호보완적이며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11일 開幕

## 27일까지 퍼포먼스 등 시민개방형으로 진행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6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개방형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막 거리퍼레이드는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의정부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까지 진행되며, 동춘서커스단, 대규모 마칭밴드, 사물놀이, 코스튬플레이, 페이스페인팅, 가자행렬 등 한바탕 떠들썩한 난장으로 막을 올린다. 바로 음악극축제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개막 축하 거리 퍼레이드다.

시민들이 대거 참가, 국내 공연예술축제 가운데 보기드문 장관을 연출해낼 개막 축하 퍼레이드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막축하 갈라쇼로 이어진다. 한국 뮤지컬의 간판스타 최정원, 남경주씨의 사회로 펼쳐지는 뮤지컬 갈라쇼는 환상적인 불꽃놀이로 마무리되며 27일까지 계속될 의정부음악극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산책로가 끝나는 곳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의 펼쳐지는 무료공연들도 프로그램과 시민참여형으로 구분되어 불만하다.

24일 오후 3시와 5시30분에는 우리나라 대표 서커스단인 동춘아트서커스의 '광대들의 깃발'이 선보인다. 26일 오후 5시에는 극단 마실의 어린이연극 '달려라 달달달'이, 13일 오후 3시에는 한국댄스경기도연맹선수단의 라틴댄스 시범, 오후 5시30분

에는 스프링웨이트 공식 초청작인 김형민무용단의 '물방', 20일 오후 5시 극단 유정의 '마침내' 등 10여개 다양한 장르의 무료공연이 공연이 시민들의 부담 없는 축제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또 공모를 통해 끼 있는 시민이 미술, 요가시범, 오키나와 연주 등을 직접 선보이는 '의정부 익스테이지'도 19·20일,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펼쳐져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것이다.

의정부시청 뒤편에 자리한 숲과 연못이 있는 직동공원도 음악극축제의 장소로 캐스팅 됐다.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축제기간 주말과 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직동공원내 산책로 곳곳에서 열리며 합창, 플루트, 색소폰, 아카펠라 등 11개팀이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같은 음악을 선사한다.

한편, 이번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개막작 '하시리카키'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미국, 스위스, 칠레,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초청작 10편이 공연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어린이 전문문화공간 탄생

## 의정부어린이도서관 開館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이용

의정부시는 5월4일 오후 2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원 의정부시장 등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호원동 회룡로 134에 위치한 어린이도서관은 연면적 2천185㎡에 지하층, 지상3층의 규모로 500석의 열람석과 5만 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우 및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점자 혼용 도서 800여권과 점자도서 320여권을 갖추어 장애우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어동화자료 4천500여권 이상을 구비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1층에 자료실(책터하나), 유아열람실(책로로보로로), 문학작

실(글고운)등을 갖추고, 2층엔 자료실(책터둘), 디지털자료실(멀티존), 문화교실(누리봄)을 운영하며, 3층은 공영장(사이언스홀), 동아리방(도서관친구), 옥상공원(하늘공원)등을 갖추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양강좌 등을 실시해 풍부한 정서와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약대출기 1대, 스마트폰가 6대, 무인대출 반납기 2대 등을 설치했다.

의정부어린이도서관의 이용대상 및 지역은 제한이 없고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도시소비자 위한 웰빙교육 큰 호응

##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관내 주부 100여명 대상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는 4월27일 관내주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 소비자를 위한 웰빙교육을 실시한 결과 주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실시한 웰빙교육은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싱그러움 초록빛의 조화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일깨우고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웰빙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파트생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식물을 이용한 테이블 장식용 수경재배 샌더피스 만들기를 실습해 주부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처음 만들어 본다며 조심스럽게 만지던 주부 강학순(신곡2동 거주, 49세)씨는 직접 만들어 보니 간단하면서도 실내 인테리어 효과까지 결합할 수 있어 좋으며 집안의 습도 조절뿐 아니라 분위기까지 차분해져서 좋으며 만족스러워 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5월 초순경 전남 보성군 녹차마을에 차일따기 등 내고장 정감맞이 행사를 비롯해 5월 하순에는 연천군에 고사리 수확 농사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농심함양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양주시 포도뉴스



## 한마음 사랑축제 어린이들과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 내외가 5월4일 도지사 공관에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초청해 열린

'한마음 사랑축제'에서 어린이들에게 꽃다발을 받은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경기 R&DB센터 개원식

5월3일 오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내 '경기 R&DB센터' 개원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관 리실장(가운데)과 이명환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왼쪽 5번째)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식전 행사로 테이블 컷팅을 하고 있다.



## 美 메릴랜드대학 총장 일행 접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수잔 엘드리지 미 메릴랜드

대학총장 일행과 원유철 정무부지사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협착·전도 재해 반으로 줄입시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지원 현수막 홍보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지원(원장 유재삼)은 4월25일 제조업 및 기타산업 재해예방의 일환으로 지도원 관할지역내의 공단단지 및 공단밀집지역 12곳에 '산업현장 협착·전도재해 반으로 줄입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생공단과 검문공단 등 근로자 밀집지역과 동두천 피혁단지과 포천 구산업 협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유동이 많은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친숙한 이미지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생공단과 검문공단 등 근로자 밀집지역과 동두천 피혁단지과 포천 구산업 협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유동이 많은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친숙한 이미지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교육청 부지주변 종합문화회관·도서관 建立

## 의정부시,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정부시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이전 부지선정을 위한 위치선정 심의위원회 후보지 순위 결정 투표에서 1위를 차지, 사실상 경기도 제2교육청 위치가 확정되어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한층 가속도가 붙음은 물론 또한 주변에 도서관 및 종합문화회관 건립과 레포츠 공원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19일 후보지 4곳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의정부교육청 제2회 의실에서 심의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갖고 1순위 - 의정부시, 2순위 - 양주시, 3순위 - 고양시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 제2청사 부지 1순위로 선정된 곳은 금오동 431-1번지 일원으로 19필지 5만㎡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은 미군기지인 캠프 에세운으로 2005년9월30일 폐쇄되어 2007년 반환예정인 지역이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출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인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캠프 에세운(24만3천776㎡)부지중 도시자연공원 14만5천455㎡는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는 종합문화회관, 도서관, 경기도 제2교육청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제2교육청 1순위 후보지로 선정, 사실상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의 위치가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인근 광역행정타운내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경기도제2소방본부, 통계청, 소방서 등 11개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지역의 수부(首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또한 추가로 도서관과 종합문화회관과 레포츠공원을 건립해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어린이교통사고 Zero실현 선포행사

## 의정부 의순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함으로써 행정자치부와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공동으로 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실현 선포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가 3일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순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과 어린이교통안전 Zero실현 선포식, 어린이교통안전 기원 기념식수, 체험교육 참관, 어린이보호구역 함께 걸기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이미숙의 전통춤이야기③ 승무

## 승복을 입고 추는 대표적 민속무용

승무는 1969년7월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이매방(80·승무·1987.7.1), 정재만(59·승무·2000.12.14), 이애주(60·승무·1996.12.31)보유자와 임규홍(57·승무·1992.7.1), 김정수(64·승무·1998.6.5), 김진선(50·승무·2005.4.20) 조교에 의해 전승 보존되고 있다.

승무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는 승복을 입고 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무용. 어르고 맺고 푸는 리듬의 섬세한 표현과 춤추는 춤사위의 묘미가 돋보인다. 승무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 같은 고깔과 버선코가 유난히 돋보이는 차림으로 열 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춘다. 소매자락을 뿌리는 동작이 화날같이 하는 팔동작은 매우 특이하며, 반주로는 피리, 대금, 해금, 징구, 북이 사용된다.

입장에서 본 불교설화 김만중 소설 중 구운몽에서 나왔다는 설, 탈춤 중에서 노장춤과 파계승의 번뇌가 낳은 춤이라는 설이 있으나 어느 것이 확실한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1910년대쯤 지방에서 발전되었다고 한다. 춤의 형태는 의식성이나 종교성, 생산성, 극성, 놀이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춤(獨舞(獨舞))으로, 춤사위가 살풀이춤과 유사함을 지니고 있어 기녀들에 의해 예술적인 춤의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진다.

승무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 같은 고깔과 버선코가 유난히 돋보이는 차림으로 열 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춘다. 소매자락을 뿌리는 동작이 화날같이 하는 팔동작은 매우 특이하며, 반주로는 피리, 대금, 해금, 징구, 북이 사용된다.



승무는 달고 어르고 맺고 푸는 리듬의 섬세한 표현과 춤추는 춤사위의 묘미가 돋보이는 춤으로, 인간의 기백과 슬픔을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시킨 이치적인 춤이라 할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